

회원사 소식

넥센타이어



● **연예인 카레이싱팀 'R-Stars'와 타이틀 스폰서 계약**
 넥센타이어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연예인 카레이싱팀인 R-Stars와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스타마케팅의 뿔을 올렸다.

지난 4월 20일 넥센타이어는 “최근 NEXEN 브랜드 이미지가 급상승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스타마케팅 전략의 적기라고 판단, R-Stars와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대 RV 차량 경주 대회인 “넥센타이어 RV 챔피언십 대회”의 성공과 더불어 이번 스타마케팅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Stars는 03년 탤런트 이세창씨가 감독으로 주축이 되어 창단된 연예인 레이싱팀으로, 현재 류시원, 안재모, 황보, 이화선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레이싱팀으로서 대중 흥행성은 물론 경기력에



서도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그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SK솔룩스 등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넥센타이어 강호찬 부사장은 “최근 들어 NEXEN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스타마케팅과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명품보증제도 시행 계획

넥센타이어는 무한 고객감동을 위한 명품보증제도 시행에 나선다. 이번 N7000 명품보증제도는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품질보증제도로 타이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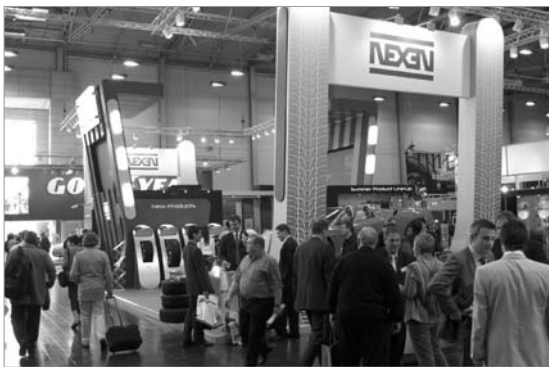
N7000 명품보증제도는 제조상 하자 및 소비자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1:1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해 주는 제도이며, 올 4월부터 12월까지 행사기간 동안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율이 20% 미만인 제품에 한해 고객의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타이어 제품에 대해 고객이 교환을 원할때 1회 교환에 한해서 시행된다.

넥센타이어 내수영업담당 최재곤 상무는 “N7000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명품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독일 Reifen Essen 2008 참가

넥센타이어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독일 에센(Essen)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박람회인 '라이펜 에센(Reifen Essen) 2008'에 참가하여, 세계 40개국의 57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20시리즈 타이어' 등 22개 제품을 전시하여 넥센의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넥센타이어는 "넥센의 수출용 주력상품과 UHP 신제품, 전략 제품 등을 해외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금번 박람회가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시장 공략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최근 유럽법인을 출범시켜 유럽시장에서의 거래선 확대와 신규 거래선 발굴 등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넥센타이어 홍종만 부회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브랜드로 발돋움한 넥센의 품질과 기술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 임원 승진 인사

넥센타이어는 지난 3월 1일부로 공격경영을 위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이 같은 조치는 08년도 핵심 추

진 전략 중 중국공장 본격가동과 국내외 OE영업 부문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우선 올해 본격 가동에 나서는 중국법인을 총괄하기 위해 경남 양산 본사의 생산본부장을 맡았던 전대교 부사장을 중국법인 사장으로 전격 승진 발령하여, 넥센타이어를 세계 최대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시장 공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국내외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재곤 상무보, 최승규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 발령하고, 박근형 부장, 천경우 부장을 이사로 승진 발령하였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내수영업 강화를 위해 조경록 부장과 박진환 부장을 이사로 승진 발령하였다.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옵티모 4S, 세계 유일의 블루엔젤 (친환경 마크) 타이어 되다!

한국타이어의 4계절용 타이어 옵티모 4S가 독일 연방 환경청이 수여하는 친환경 마크인 블루엔젤(Blue Angel)을 획득해 세계 유일의 블루엔젤 타이어가 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독일의 품질 인증서인 Blue Angel은 가장 친환경적인 고품질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계 최고의 환경 품질 인증서로써, 지난 30년간 80개 분야에서 10,000개 이상의

제품에 수여되었다. 한국타이어 옵티모 4S는 직선거리 하이드로 플래닝, 젖은 노면 제동력, 회전저항, 주행소음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안전 및 환경 기준 표준을 통과하였으며, 모든 테스트는 독일 연방환경청과 독일 품질인증원이 선정한 독립자동차안전시험기관에 의해 실시, 측정, 검증되었다.

세계 타이어 제품 중 유일하게 블루엔젤을 보유하고 있는 옵티모 4S는 4계절용 타이어로서 비대칭 타이어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모든 기후 및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폴리머 체인은 트레드 표면의 실리카와 고무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연비를 대폭 향상시킨 타이어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의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벤투스 프라임, 벤투스 V12 예보 등이 세계 유수의 타이어 메이커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에 이어 옵티모 4S로 친환경 마크 블루엔젤을 획득하여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서승화 사장은 "한국타이어는 최근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에 대해 이미 수 년 전부터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06년에는 스웨덴에서 친환경 인증 마크인 노르딕 에코라벨(Nordic Ecolabel)을 획득한 바 있다."며 "한국타이어는 4월 북경모터쇼에서 친환경 타이어 'Enfren'을 선보였고, 오는 6월 4일 '금산공장 증설식'과 함께 친환경 타이어 런칭을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 타이어 시장을 주도하며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 베이징 모터쇼에서 컨트롤 테크놀로지 선보여

한국타이어가 지난 4월 20~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서 개최된 'Auto China 2008(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하여 자사의 독자적인 '컨트롤 테크놀로지(Kontrol Technology)'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공개하였다.

컨트롤 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의 기술 철학일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단계부터 개발 및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의 집성체이다. 컨트롤 테크놀로지는 타이어의 4가지 핵심 요소인 성능, 안전성, 승차감 및 타이어의 친환경성에서 최고의 주행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K는 Kinetic(동역학, 움직임)의 첫 글자에서 인용되었다. 컨트롤 테크놀로지에 의해 개발된 탁월한 제품들은 유럽의 권위 있는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잇단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전시장에서는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핵심 요소인 타이어 패턴에 따른 소음 감소와 자연비 재료 혼합기술, 타이어 내부 구조에 따른 성능 변화를 동영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친환경타이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이는 타이어에 숨겨진 과학 기술에 따라 현격하게 달라지는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6월 출시 예정인 친환경 제품 "enfren"을



최초 공개하였다. enfren은 'environment friendly'의 약어로 친환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테스트에 따르면, enfren은 노면과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감소시켜 혁신적인 연비개선을 이루어 연간 6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g/km 저감시킨다.

한국타이어 연구생산 기술본부 김휘중 사장은 컨트롤 테크놀로지를 중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유는 중국 승용차 4대 중 1대가 한국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였고, Home-market과 같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국타이어는 컨트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한 차원 높은 명품 타이어 제품을 계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① 한국타이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스트에서 연속 1위 행진

한국타이어의 UHP 타이어가 세계적인 타이어 메이커가 참여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올리고 있다. 독일 최고의 자동차 전문지인 'Auto Motor und Sport' 지 3월호의 UHP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벤투스 프라이م'이 8개 타이어 메이커 중 1위를 달성했으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Very Recommendable'을 획득하였다. UHP 타이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테스트에는 굿이어, 브리지스톤, 컨티넨탈 등 8개 타이어 회사가 참여하였으며,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의 코너링, 핸들링, 제동성, 조정 안정성, 승차감, 소음 등 11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한국타이어는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성과 핸들링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젖은 노면 테스트에서는 100점 만점 중 97점을 받아, 2위를 획득한 굿이어와 현격한 격차를 벌였다. 종합점수에서는 한국타이어에 이어 컨티넨탈이 2위, 브리지스톤이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독일 최대 판매의 자동차 전문지인 'AutoBid'지 3월호의 UHP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는 '벤투스 V12 evo'가 15개 타이어 메이커 중 1위를 차지하며, 최고 등급인 'Very Recommendable'을 획득하였다. 1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타이어는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의 제동성,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종합점수는 한국타이어와 굿이어가 공동 1위, 뒤이어 브리지스톤, 컨티넨탈이 각각 3,4위를 차지하였다.

금호타이어

KUMHO 

① 금호타이어, 글로벌 생산체제 강화

금호타이어는 지난 5.12일(미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주도인 아틀란타에서 조지아 공장의 기공식을, 그리고 3.5일에는 베트남 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 공략과 베트남 공장을 통한 아세안(ASEAN) 시장 선점을 통해, '2015년 세계 5위 타이어 회사' 비전 달성을 위한 글로벌 경영체제 확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미국 조지아 공장

약 1억6천5백만 달러가 투자된 조지아 공장은 09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최첨단 자동화 설비 구축은 물

론 현지 인원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1차적으로 초고성능 타이어 (UHP) 등 프리미엄급 제품을 포함한 연 21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증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기공식 축사에서 "금호타이어의 미국 조지아 공장 설립은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인 미국에 국내 타이어회사 최초로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미주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갖춘 현대 및 기아자동차는 물론 미국 BIG-3인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의 완성차업체에 뛰어난 제품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조지아 공장 설립 의의를 밝혔다.



- 베트남 공장

금호타이어는 315,000㎡ 규모의 부지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315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춘 베트남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검토하여 1,300만 개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이 아세안(ASEAN)시장 선점은 물론 수출 생산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 내수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장벽이 없는 아세안 국가와, 미주, 유럽 등지에도 본사의 철저한 품질보증 하에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베트남 공장 준공으로 올해 해외 생산량(3,400만 개)이 국내 생산량(3,100만 개)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주 공장 기공과 올해 말 예정된 중국 남경TBR공장 준공 등 해외 생산 능력이 보다 확대 돼 글로벌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유럽에서 성능 테스트 최고등급 받아

금호타이어가 최근 독일과 러시아 등 유럽 유수의 자동차 전문잡지로부터 잇달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독일 최고의 공신력 있는 자동차 매거진인 아데아체(ADAC) 3월호에서 금호타이어SOLUS KH17 제품이 종합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Very recommendable'을 받았으며, 또한,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등에서 가장 저명한 자동차 잡지 '자룰렘(Za Rulem)' 3월호에 발표된 종합 성능 테스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유럽의 매거진 테스트 결과는 현

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기준임과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2008 독일 에센 전시회에서 친환경 타이어 신제품라인 공개**

금호타이어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독일에센에서 개최된 2008 에센 국제 타이어 및 부품 전시회에서 SOLUS KH19 등의 친환경 타이어를 비롯한 총 30 여종의 제품을 선보이며, 타이어 업계 친환경 리더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

동 전시회에서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 친환경 제품인 SOLUS KH19, NRBT(Natural Resource Based Tire) 및 SOLUS KL21 등의 친환경 타이어와 동급 제품보다 젖은 노면 혹은 빙판길에서 제동력이 월등히 향상된 IZEN KW27, 최대 속도 360 km/h를 낼 수 있는 슈퍼카를 위해 개발된 ECSTA X-Speed,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 등이 전시되었으며, 금호타이어의 오세철 사장은 "이번 에센 박람회의 최고 화두는 친환경"이라며, "금호의 전 제품에는 '저연비, 저소음, 저마모'의 3대 친환경 제품 개발 철학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맨유와 '금호타이어 빅매치 데이' 개최**

축구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공식 플래티넘 스폰서인 금호타이어는 오는 3월 29일(영국 현지 시간) 맨유의 홈그라운드인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트 구장에서 '금호타이어 빅매치 데이(KUMHO TIRES' Big Match Day)'를 개최하였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금호타이어 빅매치 데이'를 위한 행사에서 경기장 주변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유럽 내 주요 딜러 및 VIP를 초청하여 유럽지역 소비자 및 딜러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경기장 및 홍보부스 주변에 금호타이어 아치 및 다양한 브랜딩 시설 설치를 통해 관람객과의 직간접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여 맨유의 공식 스폰서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다.



● **금호타이어, 해외 유통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금호타이어는 중국에서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금호의 국내 특화 유통 브랜드인 '타이어프로(TIRE PRO)' 1호점을 상해에 개설하였다고 지난 4.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상해 1호점은 글로벌 유통 브랜드로서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고객을 위한 제품 전시 및 서비스 체험 공간, 상담실, 카페, 홍보관 등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타이어 전문점의 새로운 컨셉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난징, 톈진, 창춘에서 공장을 가동하여 현지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내수 시장에서의 유통 채널 강화와 확대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타이어프로'를 런칭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